



연진INC 국제 발명대회 휩쓴 테이프 절단기 '텐도'

“손목에 힘 안 줘도 테이프 쉽게 자를 수 있죠”

2012년 어느 날, 컴퓨터용품 판매 업체에서 일하던 오용철 씨는 사내에서 포장 업무를 하던 동료들을 도와주게 됐다. 상자에 제품을 담고 테이프를 붙여야 했다. 그런데 테이프 절단기를 계속 쓰다 보니 손목이 아팠다. 테이프를 자르려면 손목에 힘을 잔뜩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손에 무리가 안 가는 제품을 검색해봤지만 찾기 어려웠다.

문득 20여년 전 일이 생각났다. 그는 대학시절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이때도 포장 업무를 하면서 테이프 절단기를 썼는데 일을 마치고 나면 손목이 많이 아팠다.

2년 후 그는 연진INC를 설립, 제품 개발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테이프 절단기 텐도를 선보였다. 오용철 연진INC 대표는 “최근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포장 업무를 하는 작업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제품을 내놓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소평몰, 우체국, 택배업체 등 60여곳에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칼날 두께 기존 제품의 두 배 오 대표는 텐도를 생산하기 위해 기존 제품을 쓸 때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를 분석했다. 칼날 때문이었다. 칼날이 일자로 되어 있어 테이프를 자르려면 손목을 살짝 들고 돌려야 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칼날을 경사지게 제작했다. 텐도의 칼날 각도는 10도. 오 대표는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목을 꺾지 않아도 손쉽게 테이프를 절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지만 명분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칼날에 경사 만들어 손목 안 꺾어도 돼 왼손잡이도 편하게 사용

출시 3개월 만에 60곳 납품 가격 낮춰 판매 본격화

달았다. 칼날이 쉽게 무뎠지 않게 칼날의 두께를 기존 제품의 두 배에 달하는 6.5mm로 만들었다.

왼손잡이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 대표는 “손잡이에 작은 막대 하나를 넣었는데 이 막대간 좌우로 움직이면 본인이



오용철 연진INC 대표가 서울 공릉동 본사에서 테이프 절단기 '텐도'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김희경 기자

주로 쓰는 손에 맞게 절단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손잡이 부분을 고무로 감싸기도 했다. 플라스틱을 잡을 때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판매량은 6000대를 넘어섰다.

◆국제 발명대회에서 수상 텐도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다. 오 대표는 이 제품으로 국제 3대 발명대회로 손꼽히는 미국 피츠버그 발명대회와 독일 국제아이디어 발명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아마존,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포장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좋은 성적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달엔 신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텐도는 1만33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을 5000원대까지 낮춘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그는 “원가를 대폭 낮춰 5000원대의 제품을 곧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 hikkim@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도어캠-원도노벨 (031)505-3240 △연진INC-테이프 절단기 ‘텐도’ (02)6258-5588 △창성실리콘-실리콘 파우더 (02)869-0123 △코헬-저진동, 저소음 비공기압 바퀴 (032)765-7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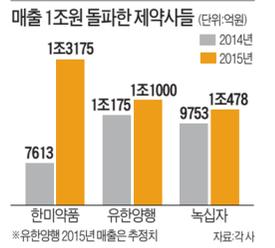
한미약품, 매출 1조3000억 (지난해) 국내 제약업계 새 역사 썼다

한미약품이 매출 1조3000억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다. 사노피아엔티스 안센 등 글로벌 제약사에 대규모 기술을 수출한 덕분이다.

녹십자도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넘어선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 이에 따라 2014년 업계 최초로 1조원대 매출을 기록한 유한양행에 이어 한미약품과 녹십자도 ‘제약사 매출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이 누적 연결기준 1조3175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7613억 원)보다 73.1%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2118억원으로 같은 기간 514.8%(1773억원) 늘었다. 순이익은 1622억원으로 전년(433억원)보다 274.8% 뛰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사노피아엔티스와의 총 5조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4억여(약 5000억원), 안센으로부터 받는 계약금 1억5000만달러(약 1300억원) 등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금액은 187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4.2%를 차지했다.



녹십자도 ‘1兆 클럽’ 유한양행에 이어 가입

국내 제약사 가운데 매출 1조원을 달성한 기업은 유한양행(1조175억원·2014년)이 유일했다.

오는 20일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유한양행은 전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1조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녹십자도 이날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7.4% 늘어난 1조478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 줄어든 917억원, 당기순이익은 10.3% 늘어난 957억원을 기록했다. 조희민기자 mwise@hankyung.com

“기술창업 기업에 470억 지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스타트업 130여곳 발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이 4일 “기술창업 단지를 아시아 벤처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청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팀스)단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팀스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기업이나 벤처캐피탈 등 민간업체가 1억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이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팀스단지 입주 자격을 얻는다.

주 청장은 올해 팀스에 470억원을 투입하

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예산 24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기존 133곳 외에 올해 신규 창업기업 130곳을 추가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 청장은 팀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술혁신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기술집약적 제조기업 비율을 현재 36%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6곳의 팀스 민간 운영사도 추가로 선정했다.

주 청장은 가상현실 계측기기 제조업체인 호두랩스코리아의 채용육 대표 등 팀스 창업가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주 청장은 “글로벌 진출 전용예산 60억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지수기자 onethi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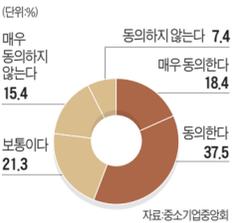
중소기업 56% “파견법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중앙회 136개사 조사

중소기업의 56%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업종을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하고 파견 대상에 55세 이상 근로자와 고소득 관리 전문직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6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응답

인력난 해소 위한 뿌리산업 파견 확대 (단위: %)



자의 55.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4일 발표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7.7%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고소득 전문직 파견 확대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이어진다’는 응답 역시 44.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3.5%)보다 많았다.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6개 업종 기업의 99.6%가 중소기업이며 이 중 10인 미만 기업이 72.6%에 이른다. 뿌리산업 업종은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청년들이 기피하며, 기존 근로자의 이직률도 높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음성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쓰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파견근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지수기자 onething@hankyung.com



현장 찾은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현장 방문 중인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4일 경기 파주시 차어세척기 제조업체인 씨앤씨의 최일규 대표로부터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중진공 제공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모집개요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국규격인증획득 및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 확대를 중국현지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수행기관 모집

▶모집분야
다음 각 호의 제품분야별 인증업무 수행 기관 선정(2개분야 이상 신청가능)
① CFDA 화장품 분야
② CFDA 의류기기 분야
③ CFDA 식품 분야
④ CCC & 자율안전인증, GB TEST 등 공산품(전기용품포함)분야
⑤ China RoHS, REACH, MSDS 등 화학물질분야

▶신청자격
중국현지에서 인증업무 대행이 가능한 중국현지 수행기관을 보유한 국내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6. 02. 04(목) ~ 2016. 02. 25(목)
○마감날짜: 우편 도착분까지 인정
○접수처: KTR 중소기업수출진흥사업단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일로 59(공영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1층 중소기업수출진흥사업단
○제출서류: 수행기관 신청서, 수행활동계획서, 정보동의서 등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
○수행기관 모집 설명회: 2016. 02. 12(금) 15:00~16:00
* (주소) KTR 과천시청 1층 2부두 (참가신청필요)

▶신청방법
자격요건전도, 전문자 대면평가(PPT발표) 등을 거쳐 선정

◆가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수출진흥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홈페이지: www.smba.go.kr (중소기업청)
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수출진흥센터)
www.ktr.or.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문의처: KTR 중소기업수출진흥사업단 (Tel. 02-2164-0172, 0174)

중소기업청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내이사 공개모집

한국 커리어노업을 선도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집합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사내이사 2명
- 자격요건
가. 리더십, 전략적사고 등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
나. 위기관리능력 및 혁신마인드를 갖춘 분
다. 대규모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이 풍부한 분
라. 공기업 일원으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분
마. 국제 감각이 뛰어나고 카지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
바. 공공기관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우리 회사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서신봉투 및 추가 1매 동봉), 직무수행 계획서
나.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각 1부
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양식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 게재(http://www.grandkorea.com)
-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2016. 2. 5. ~ 2016. 2. 17. 15:00 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제출장소: 우10808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
임원추천위원회 (인사교육팀 내)
- 접수방법: 인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장사료 도착여부 필히 확인
- 심사방법
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평가
* 면접일시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나. 심사처: 우리 회사 홈페이지 게재(http://www.grandkorea.com)
- 기 타
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추천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원추천위원회(02-6421-6303)로 문의 하시기나 우리 회사 홈페이지(http://www.grandkorea.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5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원추천위원회

성공적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제안서 작성 전략과 실무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자본조달 증진의 중요하고 지원할 유지를 위한 Valuation을 확보한 후 투자제안서를 기획하고 작성함으로써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 케미컬업계의구성과자금조달전략 - 투자기관 종류에 따른 Financing 전략
- 투자기관의 투자심사보고서 Review - 투자기관의 투자심사 절차를 이해하여 Financing 포인트 찾기
- 투자제안서 사례분석
- 투자제안서 목차와 투자 하이라이트 집기
- 자금조달 중간의 종류와 지원할 유지를 위한 Valuation
- 시장분석과 미래전망 예측, 그리고 투자자의 Exit전략 도출
- 기업가치평가: 상대가치평가법과 대체가치
- 투자제안서 작성 연습

교육인쇄

교육일정: 2016년 2월 29일(월) 09:00 ~ 18:00
교육비: 20만원 (부가세 포함)
교육장소: 한국경제신문 3층 한강아카데미 (2.5층 중정동 4번 층)
교육문의: (02) 360-4080, http://ac.hankyung.com
강사소개: 임인수 / CFA
(주)케이비피(주)트레이딩이사 | 연세대학교 경제전문대학원 석사

한국경제신문

초보 기업인, 지도자 위한

- ◆ 해외영양영어 1개월!
- ◆ 해외비즈니스 영어 1개월!
- ◆ 영어회화 2개월 속성!
- ◆ 여행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1개월!

02-747-3044 (ICC서울, 인천, 대전, 부산, 제주)

왜 도덕인가

어려운 상황 지음
민간청·이수진 공저
값 16,000원

새금채 조기상환권 행사 공고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새금채에 대하여 대대적 조기 Call Option을 행사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Call 행사처지: 새금채 조기상환권 행사
나. Call 행사비율: 100%
다. Call 행사장소: 한국산업은행 영업부

발행일	채권명	행사금액 (억원)	행사일
2015.01.04	54845000	600	2016.02.04
2015.02.04	2000000000	500	2016.02.04
2015.03.04	2000000000	500	2016.02.04

2016년 2월 5일
한국산업은행회장

사무실 임대

(1층 819.84㎡)

- 임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정책재단빌딩
- 입지
- 대우빌 2차, 23층서 대우빌 20층, 실용기동3차 버스정류장 앞
- 요호선 사당역, 3.7.9호선 교차로사당역, 강남고속터미널역 10분 이내
- 주변환경
- 병원, 관공청, 신세계백화점, 강남고급호텔사당빌딩 복합상업시설 인접
- 반포동 명문 학원가로 유동인구 다, 선술 상권 지역

☎ 02) 595-6813 / 010-8714-0575

베스트셀러 《멀티플라이어》 리즈 와이즈먼 신작

평범없이 성과를 내는 리더의 성공법 루키스마트

팀장 이상 리더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리즈 와이즈먼 지음 | 값 14,000원